

# KDB리포트

## KDB Report

### 이슈브리프

국민계정을 통해 파악한 세계 소득불평등 동향

### 개발금융포커스

중국 일대일로 의의와 한계

#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# KDB리포트 Contents

## 이슈브리프

국민계정을 통해 파악한 세계 소득불평등 동향 ..... 1

## 개발금융포커스

국민계정을 통해 파악한 세계 소득불평등 동향 ..... 3

## 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 ..... 6

# 국민계정을 통해 파악한 세계 소득불평등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 
이도건 (gd1101@kdb.co.kr)

- ◆ World Inequality Lab(WIL)은 기존 데이터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소득 데이터를 구축한 후 소득불평등 지표를 일관된 기준하에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산출
- ◆ 세전 국민소득(Pretax National Income) 지니계수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나 일부 국가의 불평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
- ◆ 고소득층의 소득집중도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상위소득층으로의 소득 집중이 심화

## □ World Inequality Lab(WIL)은 기존 데이터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소득 데이터를 구축한 후 소득불평등 지표를 일관된 기준하에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산출

- 불평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가구 소득 설문 자료는 표본의 선정, 소득의 축소 응답 등으로 고소득 계층의 소득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
  - 국가 전체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GDP 자료는 계층별 소득분배를 파악할 수 없고 타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이 포함되는 문제가 상존
- 위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WIL은 국민계정을 중심으로 가구 설문 자료 및 조세 자료 등 다양한 미거시 자료들을 활용하여 국가들의 소득 데이터를 일관된 체계를 통해 구축하고 불평등 지표를 산출
  - 순국민소득(Net National Income)\*을 산출하고 이를 노동소득, 자본소득 등으로 분해한 뒤 조세, 각종 사회보험제도, 이전지출 등을 적용하여 소득을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
    - \*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귀속되는 소득만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 GDP에서 국외순소득(Net Foreign Income)을 더한 후 자본의 감가상각(Capital Depreciation)을 차감하여 계산

국민계정을 이용하여 구축한 소득의 분류

소득 분류	구성 방법
Pretax Factor Income	생산요소(노동, 자본)를 통해 얻는 소득
Pretax National Income	Pretax Factor Income에 연금,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제도를 적용한 소득
Posttax Disposable Income	Pretax National Income에 세금을 차감한 후 현금지원 등을 적용한 소득
Posttax National Income	Posttax Disposable Income에 정부지출을 적용한 소득

자료 : Distributional National Accounts Guidelines(2024)

□ **세전 국민소득(Pretax National Income) 지니계수는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나 일부 국가의 불평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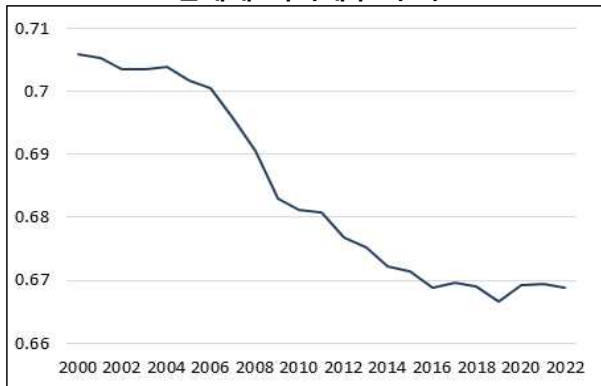
○ 수준 및 추세에 차이는 있으나 주요 국가의 세전 국민소득(Pretax National Income) 지니계수는 팬데믹 등 외부충격 시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

○ 전세계 지니계수는 2000년 0.705를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\*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으로 Sub-Saharan Africa 수준의 불평등(지니계수 0.673)을 기록

\* 전세계 지니계수 추이 : 0.705('00년) → 0.681('10년) → 0.669('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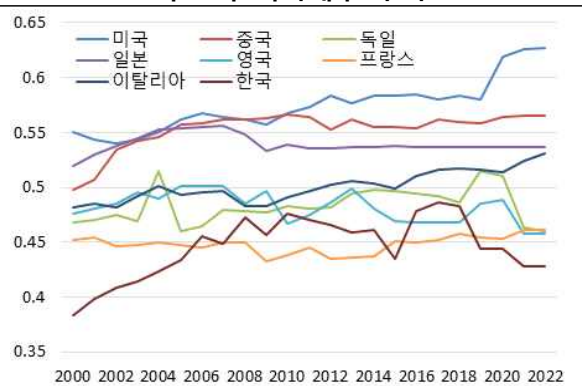
- 국가별로 미국, 이탈리아 등은 지니계수가 우상향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불평등이 심화되었고, 독일, 영국 등은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이 완화

전세계 지니계수 추이



자료 : World Inequality Data

주요국 지니계수 추이



자료 : World Inequality Data

□ **고소득층의 소득집중도가 높은 수준\*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상위소득층으로의 소득집중이 심화**

\* '23년 명목 GDP 상위 20개국의 소득 상위 10% 소득비율 평균(%) : 40.4('00년) → 42.3('10년) → 42.6('22년)

○ 주요 국가의 저소득층(하위 50%) 소득비율 추세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점\* 등을 감안시 향후 불평등 악화 정도는 고소득층(상위 10%)의 소득집중 속도가 중요

\* '23년 명목 GDP 상위 20개국의 소득 하위 50% 소득비율 평균(%) : 17.2('00년) → 16.4('10년) → 16.1('22년)

○ 고소득층 내에서도 최상위소득층으로의 소득집중이 심화되는 상황

- '23년 명목 GDP 상위 20개국의 소득 상위 10% 소득 중 상위 1%, 0.1%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은 2000년 각각 32.7%, 10.9%에서 2022년 35.0%, 12.6%로 최상위소득층으로 소득집중이 심화

# 중국 일대일로의 의의와 한계

KDB미래전략연구소 개발금융연구센터  
전 철 수 (abanker@kdb.co.kr)

- ◆ 복합구도의 패권경쟁 전략인 중국의 일대일로는 공식 추진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일정 성과도 있었으나, 한계와 문제점에 직면
- ◆ 일대일로의 추진은 짧은 기간 내에 완결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, 장기적 안목에서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불확실성 대비 필요

## □ 중국 일대일로(一帶一路, One Belt One Road)는 미국 동맹체제에 대응하는 중국 중심의 질서 구축과 지속적 성장 동력의 확보를 목표로 하는 복합전략

- 일대일로는 '13년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순방하면서 처음 사용한 이후, '15년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'전망과 행동' 문건에서 장기 국정 과제로 선언
  - 중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육상 경제 벨트와 동남아시아, 유럽, 아프리카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
  - 도로, 철도망, 물류허브 등 인프라 건설 규모는 약 1조400억 위안(185조원)으로 추산
    - \* '23년 기준 14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, 중국은 30여 연선국가와 공동 건설 관련 협약 체결료
- 일대일로는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패권경쟁 전략, 대내적으로는 신성장 전략으로서 복합적 성격을 보유
  -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서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응하여 중국 중심의 국제 경제협력 질서와 지형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견제를 벗어나 패권국으로 도약하려는 의도를 내포
  - 대내적으로는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누적된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\*하고, 중국 서부지역과 해외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개발방식의 전환을 의미
    - \* 중국 건설업체들이 주요 프로젝트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장비 및 제조사들은 관련 수주를 통해 중국 국내의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계기로 활용



자료 : 일대일로(<http://namu.wiki>)



자료 : 중국-파키스탄 경제회랑(CPEC) (한국일보 2015.4.20)

□ 일대일로는 다수의 참여국들을 통하여 국제협력의 신규 플랫폼을 마련하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, 수원국의 재정악화 등 한계요소들을 동반

- 협력국가와 인프라 상호연결(6대 회랑, 6대 노선) 등을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는 그간 참여국 140여개, 국제기구 30곳, 상호투자 누적 3,800억 달러, 3차례 국제 협력 정상포럼 개최 등의 실적 달성
  - 중국 정부는 '일대일로는 국제 공공재이자 국제협력 플랫폼을 제공했다'고 자체 평가하며 원활한 정책 소통, 효율적인 시설 연결, 원활한 무역, 자금 융통, 민심 상통을 주요 성과로 제시
    - \* KIEP 북경사무소(2023), "중국의 일대일로 10년의 성과 및 평가",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.25, No.7
-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, 미국의 '인도-태평양전략' 등 대중 압박 및 중국의 경제적, 국제적 위상 하락으로 최근에는 대내외 비판과 부정적 평가가 다수 제기
  - 중국의 미국 대비 GDP가 '21년 75.2%에서 65.0%로 하락\*하고, 중국의 경기둔화 장기화 속에 최근 패권경쟁에 대한 부정적 의견 확산
    - \* 동아일보(2024.1.27), "G2 전쟁 승기 잡은 美 3.3% 깜짝 성장, 中 GDP, 美의 65%로 추락"
  - 중국 자금으로 인프라를 건설하는 수원국의 대부분이 서방의 투자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도국들이므로,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무작위 투자국 선정이 참여국들의 재정상황 악화를 초래했다고 비판
    - \* '22년말 기준 최빈국 74개국의 채무 규모는 350억달러로 이중 40% 이상이 중국에 상환해야 할 부채이며, 중국 투자대출 중 89%가 세계 거버넌스 지표 '부패지수 평균 이하' 국가들에게 집행 (동아일보(2023.1.28), "부채의 덫에 빠진 中 일대일로 참여국, 줄지어 국가부도 위기")
  - 중국 내부에서는 대규모 해외 자금지원 때문에 자국의 발전과 복지를 도외시한다는 비판 여론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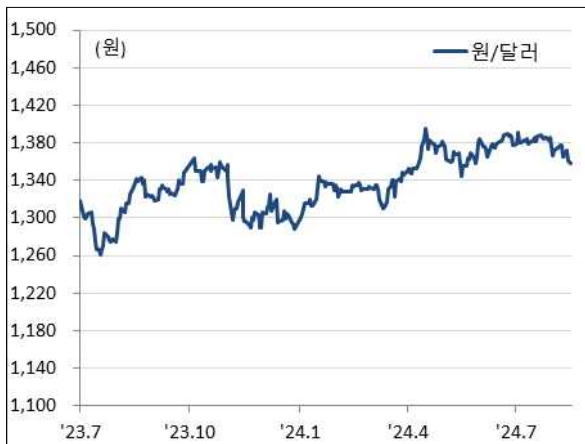
- 일대일로 전략의 대표적 사업들은 수원국의 채무불이행 및 협정 탈퇴 등 난항 발생
  - 중국·파키스탄 경제회랑\*은 '30년까지 고속도로, 철도, 송유관·가스관 및 광케이블 (육상운송로 2,000km) 등을 동시 건설하는 사업이었으나 대규모 시위로 공사가 중단되고 '22년 파키스탄은 채무불이행 사태에 직면
    - \* CPEC : China-Pakistan Economic Corridor
  - 미국의 관할권 밖에서 석유 및 가스의 안정적 운송로 확보 전략으로 추진되었던 함반토타 항구 개발건은 운영 실적이 미진하여 차관상환이 불가해지자 항구지분과 운영권을 중국 앞 이관하였고, 이후 스리랑카 디폴트 선언('22.4월) 사태 발생
  - '19년 '일대일로 참여 양해각서'를 체결한 이탈리아는 중국과 총 25억 유로 (약 38억 달러) 규모의 협정을 체결하였으나, 이탈리아 멜로니 우파정부는 '23.3월 일대일로 탈퇴를 통보
  
- 최근 중국은 '작고 아름다운(小而美) 프로젝트', '녹색발전' 집중 등으로 부정적 국제 여론과 부작용에 대해 대응 노력중
  - 자국 경쟁력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, 저탄소 녹색협력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시도
  - 일대일로 확장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자본유출, 뇌물공여,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해 해외자산 매각, 중국기업 감찰 등으로 대응책 마련
  
- **일대일로 전략의 추진은 짧은 기간 내에 완결되기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, 우리 정부는 장기적 안목과 시장 분석 역량 강화 등 철저한 대응을 모색할 필요**
  - '세계 패권국 지위에 대한 경쟁'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, 장기적 안목에서 리스크 관리 및 모니터링으로 불확실성 대비 필요
    - '24.7월 폐막된 3중전화\*에서는 중국의 기술자립화, 공급망 안전확보, 첨단기술 주도의 산업 고도화 등 독자적 생태계 구축 의지를 재확인\*\*
      - \*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세 번째 전체회의
      - \*\* 중앙일보(2024.7.25) "하현옥의 세계경제전망, 첨단산업 위주로 고도화 추구,美中대결 심화는 부담"
  
  - 美·中 패권경쟁이 무역분쟁에서 시작되어 공급망 재편과 시장 분할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으므로, 이에 대응하여 시장과 기업의 동향 분석 등을 강화할 필요

# 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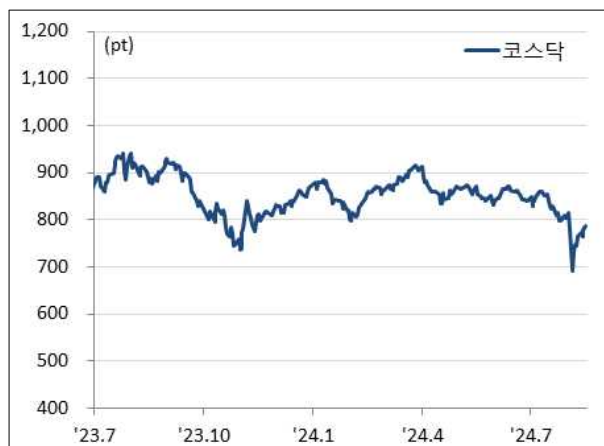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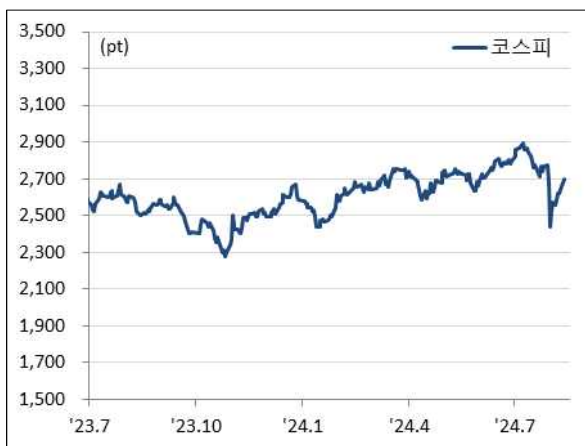
**금리** 국고채3년 2.928% (1.1bp ↓), 신용스프레드 45.5bp (3.5bp ↑)



**환율** 원/달러 1,357.6원 (13.6원 ↓), 엔/달러 147.61엔 (1.08엔 ↑)



**주가** 코스피 2,697.23pt (0.79% ↑), 코스닥지수 786.33pt (0.90% ↑)



\* ( 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# KDB리포트

KDB Report

제1043호

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**인터넷**            rd.kdb.co.kr, kdb.co.kr

**문의**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787.7818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당행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 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